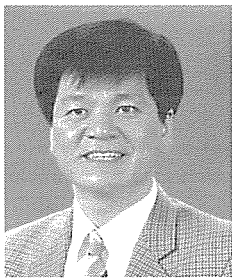


# ‘걸프전’의 교훈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태계의 무자비한 파괴를 통해

인류의 생물학적 생존 자체를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비도덕화를 부채질함으로써 인간을 내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걸프전에서 보더라도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적 장치와 무기가 인간활동을 매개함으로써 현대기술문명이 인간을 비도덕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姜正仁

(서강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과**거 4백년동안 서구문명이 비서구 세계를 정복·지배하여 온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우위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이처럼 서구에 의해 추진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보급에 의해 서구는 물론 비서구 세계의 많은 인간들이 물질문명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은 생태계의 무자비한 파괴를 통해 인류의 생물학적 생존 자체를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비도덕화(非道德化)를 부채질함으로써 인간을 내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만약 생물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도덕의식을 갖춘 존재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면, 도덕성을 상실한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기술문명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기술문명은 인간을 ‘非人間化’

기술은 전통적으로 가치중립적인 도구로, 곧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를 들어, 칼이라는 기술적 도구는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명의 이기(利器)로, 강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기로 생각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핵분열 기술 역시 종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기술로, 반대로 핵무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해악을 가져

오는 기술로 인식되어 왔다. 곧 기술 및 그 산물은 일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의 선악에 따라 도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놓고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비도덕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간의 어떤 기술적 행위를 놓고 그 도덕성·부도덕성을 논한다는 사실은 일정한 도덕적 기준 및 도덕의식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간이 비도덕적인 존재로 화(化)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도덕적 기준의 실종 또는 도덕의식의 마비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살해할 때, 갑은 엄청난 도덕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갑은 인간이 인간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도덕률을 깨기 때문에, 비록 사형집행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윤리적 긴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직무상 반복되게 되면 그 사형집행인은 보통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도덕적 긴장이 수반되는 행위를 아무런 내면적 갈등 없이 마치 자동기계처럼 수행하게 된다. 그 경우 우리는 그 인간이 비도덕적(amoral)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간은 이제 아무런 감정적 동요없이 태연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타인을 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세간을 떠들

씩하게 하는 엽기적인 '살인자' 들을 통해 일상적으로 그러한 인간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특정 부류의 인간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기술문명의 발전과 보급에 따라 이제는 평범한 인간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진부한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걸프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걸프전은 세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냉전의 종언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군림하게 된 미국은 그 패권에 도전하는 후세인의 이라크를 무참하게 박살냄으로써 미국의 세계 지배에 불만을 품은 여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에 도전하면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각종 첨단 무기를 마음껏 시험함으로써 현대전의 기술적 성격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둘째, 걸프전은 그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가 전쟁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제기된 최초의 전쟁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환경단체들은 유전지역의 화재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석유유출로 인한 해안오염 등 전쟁으로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이유로 전쟁에 반대하였고, 미국 행정부는 예상되는 환경피해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맞섰다. 결국 전쟁은 강행되었지만, 인명피해 이외에도 환경피해가 실제 전쟁에 대한 찬반이유로 거론되었다는 점은 환경운동 및 전쟁의 미래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걸프전서 非道德化 확인

셋째, 이 글이 논하고자 하는 주제로서, 걸프전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적 장치와 무기가 인간의 활동을 매개함으로써 현대 기술문명이 인간을 비도덕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 이라크 상공에서 레이더 등 각종 첨단 기술장비의 지원을 받아가며 폭격을 감행한 미군 조종사들은, 과거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한국군이나 미군과는 달리,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비디오 게임에서 전쟁 게임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단지 현실의 전쟁이 아니라 가상적인 게임이라는 암묵적 가정하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무차별한 살상을 감행하도록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

### 도덕적 갈등없는 살인행위

마찬가지로 전쟁이 첨단 기술장비를 사용하여 고도로 기술화됨에 따라 이제 인간은 아무런 도덕적 갈등이나 감정적 동요없이 다른 인간을 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미군 조종사들은 코카콜라를 마시거나 팝 음악을 듣는 여유를 즐기면서, 단지 계기판의 지시에 따라 단추를 누르기만 해도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폭격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조준한 목표물을 향하여 발사단추를 누르는 최초의 원인 행위와--아니 어쩌면 단추를 누르기 전에 계기판을 통해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기술적

장치까지 포함한다면 단추를 누르기 이전부터--참호 속에 숨어 있던 실제 인간이 폭탄을 맞아 살해당하는 최종적인 결과 사이에는 수많은 기술적 장치들이 매개되어 있고, 또 시간적·공간적으로 격리 또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살인이라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윤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사실상 그가 살인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는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단지 수많은 기술적 장비들의 연동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톱니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역할은 독약을 담은 음료를 건네주는 자동판매기의 역할보다 더 미미할지도 모른다.

부도덕한(immoral) 인간이 비록 나쁜 짓을 저지르지언정 도덕의식을 갖춘 존재라면, 비도덕적인(amoral) 인간은 이제 자신의 행위의 부도덕성을 감지할 능력을 상실한 도덕불감증에 걸린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참회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 점에서 비도덕적인 인간은 바로 프랑스의 실존주의 소설가 까뮈가 「이방인」에서 주인공 뫼르소를 통해 묘사하고자 한 인물과 흡사하다. 현대 기술문명의 발전과 보급은 이제 뫼르소와 같은 인물을 특이한 인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물로 만들어 버렸다. 걸프전에 참가한 미군 조종사들은 예외적인 인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이다. ①7